

ARCHITECTURE ESSAY



소영선 건축사진가
by So, Young-sun

· 중앙대 예술대학원 사진학과(미술학 석사)
· 서라벌대, 중앙대, 경주대, 경일대 출강
· 다시 만난 백제, 부여에 가 보았어요
· 진주성, 불교 동자상, 불국토 등 저술
· 현 cmv photo 운영

조선 왕릉의 사계

Four seasons of Chosun Dynasty Royal Mausoleum

창작인의 길 - 창작을 위한 동행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상은 참 혼란스럽다.

물질문명은 그야말로 개벽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욕심, 지도층의 도 넘은 불공정과 부패, 자기 이해를 위한 온갖 술수와 이탈은 심지어 학교나 예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그 세상 속에서도 의연함을 지키거나 인고의 무게와 따스한 체온의 느낌은 우리의 희망이요,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창작혼!

자타를 막론하고 인간의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의 진실 됨과 자연 그대로의 생생함을 그려 낼 그것은 모든 창작인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리라.



동구릉

'사진'은 마음의 표상, 침묵의 흔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진의 깊어지는 삶을, 자연을, 우주만물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른다고 한다. 찍는 찰나의 마음 이야기! 세상이 찰나의 연속이요 움직임이니 마음이 연하고 하나 됨이면 과거, 미래의 시간의 분별 또한 넘을 수 있단 말인가.

차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차 맛을 온전히 알듯이, 주의 주장보다는 느낌이요, 진정한 앎이다. 말 없는 앎이 옳으나, 편견과 짐착만 버린다면 말이나 글도 얼마나 큰 보물인가.

창작인은 말없이 작품으로 말한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도 담아낸다. 맑은 눈으로 세밀히 들여다보면 사랑, 고통, 여러 가지 관계, 마음의 흔적 등이 보이기도 한다. 대상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에 달렸다.

가장 '아름다운 집'이란 나 스스로 내 삶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인연들이랑 어울리는 꿈을 꽃피우는 집이 아닌가?

인식의 차이는 곧 행위의 차이로 나타난다. 한 여인을 놓고도 사내는 여색으로, 사자는 먹을거리로, 성인은 진리의 화신으로 본다면 대상이란 실체가 아닌 다만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돈 벌이로 건축함은 '돈벌이의 건축'이지... 그냥 건축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 건축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은혜로움이 배어날 때 진정한 건축 행위이다!

그들의 일상을 사랑하는가?

삶의 실제 문제를, 자연을 생생히, 원만하게 바라보는가?

우리 건축사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

이제 우리도 산업화 시대의 건설에서 진정한 '건축'으로의 재정립이 절실한 시기이니 만큼 사진 또한 그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창작인은 그 때의 삶이나 당대를 정직하고 섬세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도 우리도 기대하고 함께 만들어가 보자(편집자주)

조선 왕릉은 신의 영역, 신성한 침묵의 공간이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2009. 6. 27)된 조선 왕릉은 1392년 고려 왕조를 끝으로 1910년까지 519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뒤로 한 채 오늘날도 깊은 침묵에 잠겨있다.

신적 공간인 조선 왕릉은 사방으로부터의 번잡함이 두려워 여러 겹의 산세로 둘러 싸여 있다. 저마다의 나무들도 질푸름을 지닌



동구릉

채 봉긋 솟아난 대지위에서 웅위하듯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같은 숲을 이룬다.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침묵은 대지를 지나 나무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바람에 실려 숲 전체에 퍼져 나아간다. 숲에서 한 마리의 새 울음소리가 침묵을 깨운다. 힘박눈이 내리는 겨울밤, 숲에서의 그 울음소리는 더욱 깊은 침묵으로 인해 맑고 청아하다.

신의 영역인 조선 왕릉에도, 우리 인간세계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찾아온다. 계절의 변화는 침묵의 리듬이며, 생동의 리듬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침묵을 더 한다. 대지와 하늘사이 모든 것들이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러나 눈 내리는 겨울에는 침묵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다. 대지와 하늘이, 자연과 동물도 곧 하나가 된다. 그리고 신의 영역의 주인들도 500년 역사를 안은 채 대지와 하늘과 함께 침묵하고 있다.



인현릉

왕릉에 봄이 찾아오면 대지는 깊은 침묵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창조가 시작 된다. 숲길을 따라 지나가는 물길은 대지를 적시며, 물길 가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고, 새들의 노래 소리는 한 줄의 시가 되어 번져 나아간다. 모든 것이 침묵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다. 물길을 가로질러 놓여진 금천교를 지나면, 홍살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아침 봄 햇살에 더욱 붉게 빛난다. 이 문을 지나면 능력 중심부에 다다를 수 있는 신도와 여도가 열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길은 또 다시 침묵 속으로 인도한다.

이 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제사를 모시는 중심적 공간인 정자각이 나온다. 침묵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

가 하나 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 되어 영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선조와의 만남을 통해 오백년의 역사를 알고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정자각 위 언덕을 넘어 봉분 앞에 다다르면 화강암의 다양한 석물들이 나타난다. 바로 앞에는 무석인과 문석인이 후면의 마석과 함께 하나씩 놓여 있다.

최초의 거대한 화강석은 다듬어 지지 않은 하나의 침묵 덩어리였다. 석공은 이 거대한 덩어리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새겨 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열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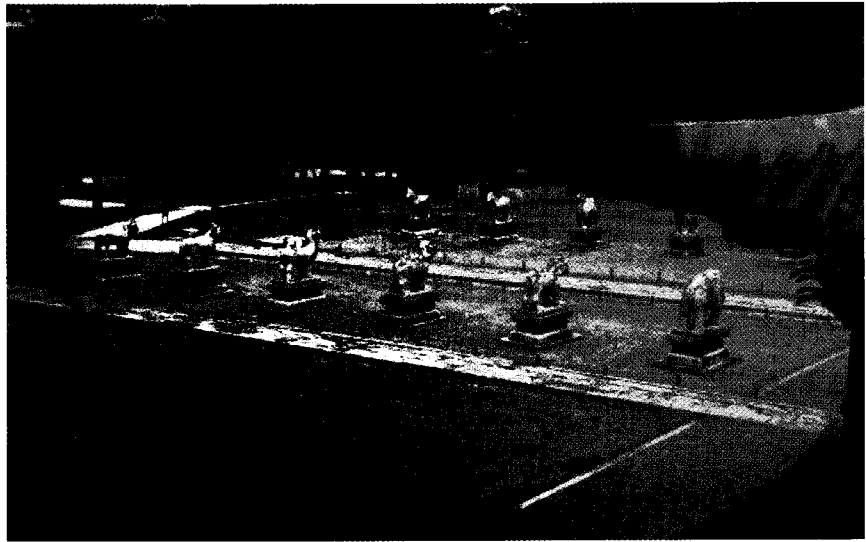
마침내 거대한 침묵덩어리는 새로운 사랑과 진리의 생명체로 태어났다. 그 앞의 장명등과 혼이 쉬는 자리인 거대한 혼유석. 봉분과 그 둘레의 호석과 양석, 역시 사랑과 열정과 진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다. 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겨울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서 있었던 그들에게도 봄은 찾아왔다.

겨울 눈 덮인 대지에 뿌리박고 서 있던 나무들도 봄의 태양아래 침묵에서 깨어난다. 봄바람의 리듬은 음악이 되고 나무의 움직임은 곧 춤이 된다. 새들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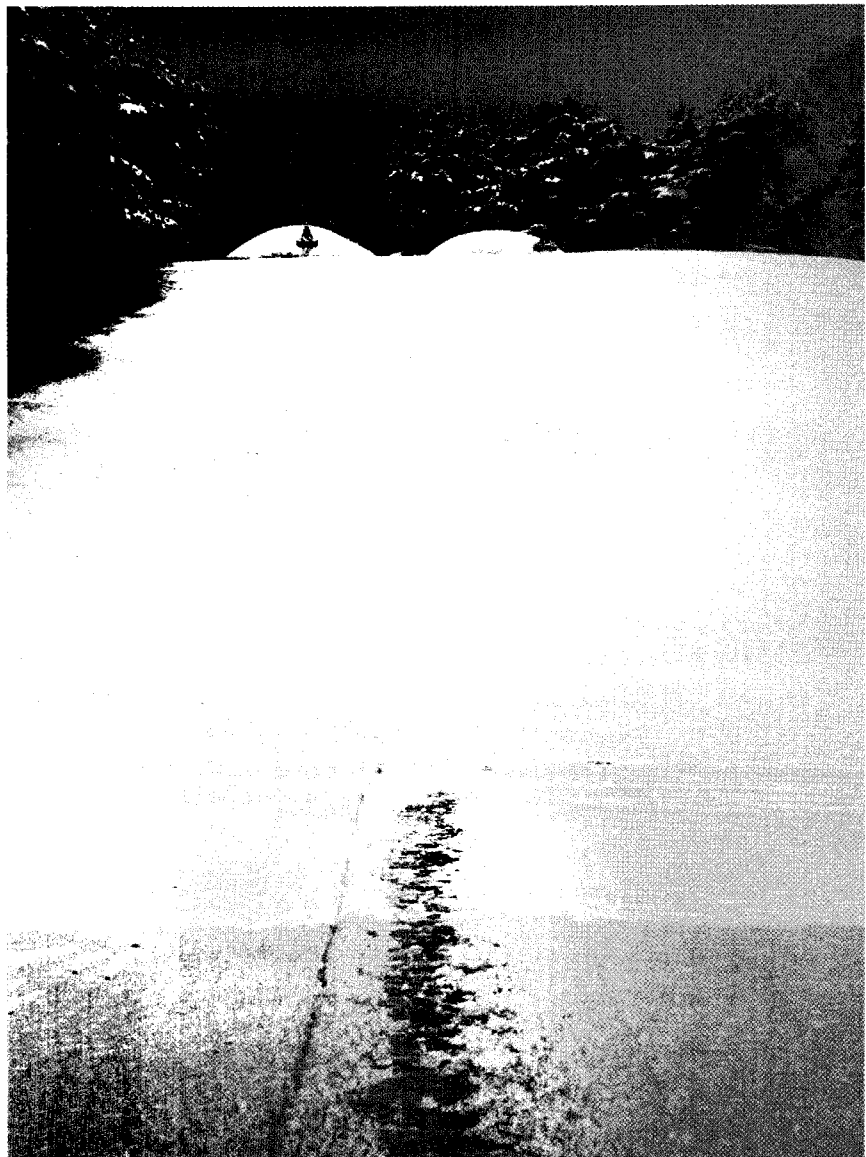
또 밤이 찾아오면 부드러운 달빛과 함께 내일을 위한 침묵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여름의 왕릉은 푸름으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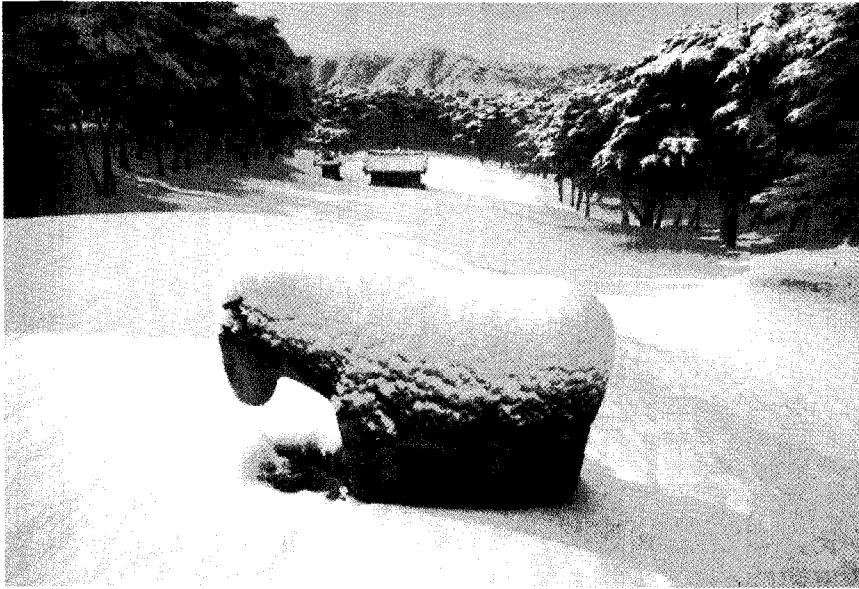
겨울 침묵 속의 사랑과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 왕릉의 숲은 푸르다 못해 검푸르다. 새들의 사랑의 노래도 더욱 힘차다. 숲이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는 왕릉의 담을 넘어 인간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열기로 가득해진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아래 봉분 앞의 석물들도 자신을 잊은 채 사랑의 정열로 지칠 줄 모른다. 한 줄기의 소낙비가 내린다. 붉은 빛줄기는 대지



홍유릉



인현릉



사랑

와 숲으로부터 넘쳐나는 열기를 식혀주며, 자연은 잠시나마 침묵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가을이 왔다.

왕릉은 이른 봄, 긴 여름 동안 사랑의 에너지로 넘쳐났다. 겨울의 무거운 침묵에서 깨어난 사랑과 열정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침묵해야 한다. 사랑의 충전을 위해 침묵의 계절인 겨울로 돌아가야만 한다. 나무들이 차례차례 침묵의 길을 위한 붉은색, 노란색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동물들도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왕릉의 가을은 깊어져만 간다.

나는 평소 조선 왕릉의 사계를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기에 한 겨울 눈 내린 왕릉을 찾았다. 눈 덮인 왕릉은 나를 깊은 침묵의 세계로 안내하였다. 나는 그를 침묵으로 바라보았으며, 마침내! 나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의 세계인 현존으로 안내되었다.

시인은 시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듯이, 사진가는 사진을 통해 드러낸다. 그의 시에는 침묵의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고, 사진가 또한 침묵 속에서 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침묵 속에 진정한 사랑과 생생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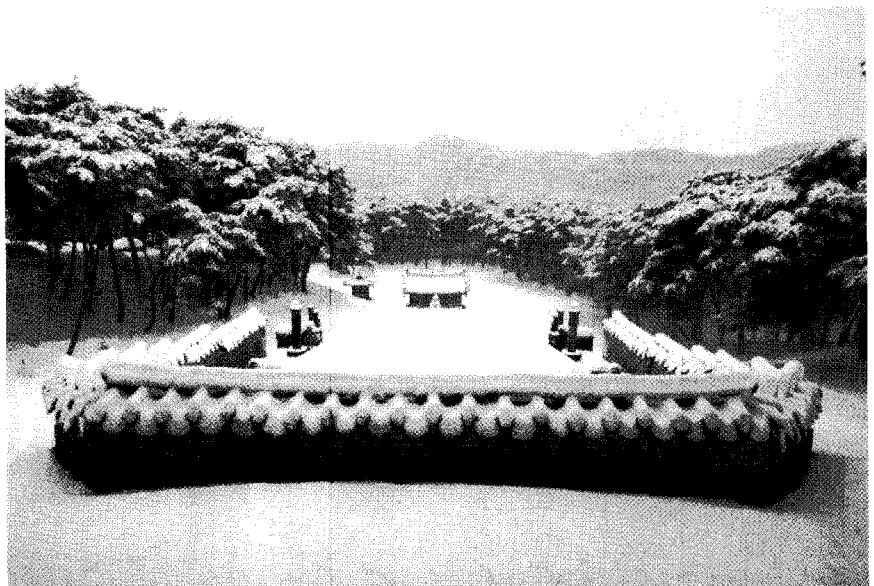
'사진을 한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봄으로서 시작한다. 대상을 온전히 바라봄은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이는 대상에 대하여 나름의 이해가 아니라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가 살아있는 이해함은 주관적이며 자아에 의해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봄'에 있어 잘못 될 수 있다.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자아가 없는, 즉 모든 욕구와 희망, 동경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여야만 한다. 침묵 속에 충만 된 사랑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대상이 갖는 참 존재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이다.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은 침묵하는 자로서 "봄"과 "앓"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이며, 대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자이다. 이것은 이원적인 세계에서 일원적인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찰나의 세계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없는 현존의 세계로 모든 것이 초월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 대상과 나는 사라지며, 남는 것은 순수한 존재 자체인 최고의 존재자(우리는 이를 신이라 부르기도 함)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리고 침묵을 통해 조선 왕릉에서 우리는 그 하나의 신을 만날 수 있다. ㉮



사랑